다락방 모임 리더 해설지 (9/27 주간)

만민을 위한 영원한 언약 (창 17:1-27)

1.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4-7절)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 **하나님은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4절)"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5절).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뀝니다.

(2)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브람은 한 가족의 아버지를 넘어, 열방을 향해 뻗어가는 리더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그에게서 여러 민족들과 통치자들이 나올 것입니다(6절). 아브라함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선택받고, 자신을 통해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버지가 언약의 표시를 새겨 자신을 구별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아 구별되고, 또 다음 세대를 생산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나눔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내가 감당할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2. 이 언약에 누가 포함됩니까?(7, 9절) 언약의 표시가 무엇입니까?(11-14절)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 **할례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자녀뿐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이방인 종들까지 포함됩니다.** 아브람의 집안 사람은 자녀뿐 아니라 돈을 주고 사 온 이방인 종들까지 모두 언약 안에 포함됩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편입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언약은 만민을 향해 열려 있는 수평적인 언약입니다.

(2) **언약의 표시는 몸에 새기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피는 '영적인 성장을 막는 장애물'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요 대리자'라는 표시를 몸에 새기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3) **할례 언약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언약입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된 남아에게 할례를 행하여 구별하고, 그 자녀가 다시 다음 세대를 낳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녀에게, 다시 그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서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인 언약이지만, 언약의 표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는 배타적인 언약입니다.

(4)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성도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후손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몸에 새겨진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골 2:11-12). 세례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로서 온 세상을 회복할 새로운 인류로 택함받고 구별되었으며, 아브라함처럼 만민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존재입니다.

나눔

나는 세례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언약 파트너요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 중에서 그 정체성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3. 아브람과 동등한 언약의 파트너로 부름 받은 사래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까?(15-16절)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 **하나님은 사래도 아브라함과 동등한 언약의 파트너로 세우십니다.** 할례 언약의 표시를 몸에 새기는 것은 아브라함 집안의 남자들이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언약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래를 아브라함과 동등한 언약의 파트너로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의 이름도 바꾸십니다.

(2) **사래는 '사라', 곧 '열국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사래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지만, 이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며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16절). 사라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3) **사라가 언약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것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명이 부부 모두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함께 믿음을 이어갈 언약의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배우자와 함께(혹은 교회와 함께) 언약의 자녀를 기르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 사라를 통해 언약의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은 아브람에게 어떤 새로운 도전이었습니까?(17-20절)
오늘 우리에게 할례 언약은 어떤 도전을 줍니까?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1)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안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99세)과 사라(90세)는 이미 생산능력이 다 끊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지난 13년간 쌓아온 삶의 안정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17절)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크기 바랍니다"라고 응답합니다(18절).

(2)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셨습니다.** 언약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전능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지만(20절),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파트너는 사라가 낳을 이삭입니다(19절). 이삭의 탄생은 인간의 계획과 자연적 법칙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오늘 우리에게 할례 언약은 먼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도전을 줍니다.** 부모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께서 새겨주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날마다 힘입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죄로 단단해진 부분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며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4)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전수하라는 도전을 줍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하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마음에 새기게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예배를 짧게라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표피를 제거해서 몸에 언약의 표시를 새기는 것이지만, 세례 언약은 마음에 죄를 제거하고 성령으로 약속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지만, 우리도 매일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책임입니다.

(5) **언약을 전수하는 일은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이 더 결정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로 성장하기 바랐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언약을 전수하는 일에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이 더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끝까지 순종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나눔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 이번 주부터 시작하거나 다시 회복할 작은 실천은 무엇입니까?**